

당신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죽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영국 선교사 글레디스 에일워드(Gladys Aylward)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군대가 중국 북부를 침략했을 때, 그녀는 100여 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양행으로 급히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고아들을 산속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안전하게 피 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때 13세 소녀 하나가 선교사에게 모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기적의 사건을 말입니다. 그러자 에일워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야, 난 모세가 아니야” 그러자 어린 소녀가 대답합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는 여전히 하나님입니다.”라고 말입니다.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 - 곰 이야기]

우리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마치 사막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막 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목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에서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방향을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능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
는 것, 그로 인해 아직도 우리의 가슴이 뛰고 있다는 것 - 사막 깊숙이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서 노아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 “당대에 완전한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기 전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노아가 살고 있던 세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6-7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을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 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을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즉,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믿음을 보이라!”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고백했던 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말, 바로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의 학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부모 밑에서, 그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예수님에게 귀족 같은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받은 유산도 별로 없으며, 사회적인 지위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닮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것은, 그런 예수님의 외적인 조건들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닮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삶의 방향, 그 분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 분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던 그 삶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인생에 대한 비유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막으로 비유 할 수 있을까요? **스티브 도나휴의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이라는 책.**

저도 흔히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란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산의 정상을 오르는 것이라면 두 가지 면에서 참 불합리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많이 아팠을 때 -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성공적이 되어야)

첫째는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산에 올랐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그 곳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정상에서 우리가 만끽하는 즐거움이란 기껏해야 5-10분 정도에 불과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쓴다면 밥을 먹고 내려오겠지요?

정상에 오르는 즐거움을 위해 그 산을 오르는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고행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공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무언가 목적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 .

오늘 본문에 노아가 살았던 그 세상이 처참하리만치 타락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었지만, 당대의 의인 노아에 대하여 창세기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인생은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방향이 분명하면 ‘불편’해도 ‘불행’하지 않아! 잘못된 인생은 ‘편안’해도 ‘불행’한 것)

둘째로, 우리의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 정상을 바라보며 갑니다. 묵묵히 참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때때로 정상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참 많이 해 보지 않았나요?

2009년 제가 썼던 글입니다.

초창기 제가 TD 사역을 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가평에 있는 상판리에서, 다음에는 대전에서, 그 다음은 홍천에서, 제천에서, 오산으로 장소를 옮기며 10년이 지난 동안 4천명 가까운 사람들이 영성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참 길이 보이지 않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먼저는 제가 spiritual leader를 맡아가게 된 사연도, 당시에 담임목사이던 김우영 목사님이 갑자기 못한다고 하시는 바람에 맡아가게 되었고,

당시 어린 나이에 그 일을 맡아 간다는 것이 권위도 없었거니와 candidate를 모집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차를 타고 영성훈련 장소로 가는 순간 저는 수없이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시는 안한다. . .”

그런데 영성훈련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어김없이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에도 꼭 해야지. . .”

왜냐하면 TD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이 길이 내가 갈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고 있었고, 내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는 묵묵히 걷고 있었습니다.

이제 영성훈련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딱 반이 지났을 무렵, 저는 왜 하나님께서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 같은 그 길을 저로 하여금 가게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저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나누었던 많은 사람들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은 영성훈련을 저와 함께 받은 분들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함께 중요한 회의를 할 때, 우리는 회의 보다 기도하며 그 때 받았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억을 되살립니다. 그래서 눈물이 있고, 회복이 있고, 결단이 있습니다.

제가 영성훈련을 하며 여러분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미안해요 목사님을 미워했어요. . .”

이야기 하지 않으면 몰랐을 많은 고백들을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의 가장 무거운 짐들, 가슴 아팠던 일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면서 하나하나 치유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역이었던 것을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막을 걷는 것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걷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사막”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가는 방향을 알 수 없는 곳, 그래서 무작정 걷다보면 사막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미로와 같은 곳, 그래서 그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침반”이라는 사실. 북극성을 보고도 그 사막을 건널 수 있지만, 그 북극성도 낮이 되면 햇빛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 그래서 또 길을 잊을 수밖에 없는 곳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보아야 하는 “나침반”

중요한 것은 그 사막을 건너는 시간들을 즐기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듯이. 그래서 사막은 목적을 향해가는 고행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동안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현장입니다.

믿음으로 사막을 건너갑시다!

말씀을 준비하며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가 사막을 건너는 중에 믿음의 나침반을 보고 걷다 보면, 그 곳이 바로 길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가 재미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오니. . .)

우리가 사막을 걷다보면 지치고 쓰러질 때, 강물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며 그 사막 한 가운데서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막 가운데 신기루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 때 우리가 나침반을 보지 않고 신기루를 따라 간다면 인생의 사막을 건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물처럼 보이는 신기루를 따라가다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갈증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신기루들이 있습니까?

거짓된 우상과 명예, 우리를 유혹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 . . 다 나열할 수 없습니다.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산을 타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꼼꼼없이 나침반을 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산을 탈 때는 얼마나 많은 준비, 얼마나 치밀한 계획, 그리고 풍부한 경험에 의해 성공의 여부가 좌우됩니다.

하지만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잘 준비된 GPS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았던 커다란 모래산이 내일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장비와 완벽한 차량도 자만하는 순간 모래에 빠져버리면 오히려 그 무게 때문에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준비한 것들로 인해 인생의 무력감을 철저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산을 오를 때와는 다른 준비입니다.

딱딱한 등산화는 우리의 발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 속에서 발에 물집을 잡히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장한 딱딱한 장비들을 한번 내려놓고 방향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교회 청소년부에서 말씀을 전한 이루다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당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의 삶을 바꿔놓은 사건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늘 자식을 때리는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되지 말자!"

그렇게 결심하고 열심히 노력한 이 청년은 사업가로서 성공을 합니다. 좋은 집에, 좋은 차, 좋은 아내 그리고 아들까지 낳은 완벽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지요. 저는 잘 모르는 차지만 램보르기니라는 비싼 스포츠카를 소유하게 되었고 애지중지 합니다.

어느 날 주차장에서 정성스럽게 차를 닦고 있는데 '끼이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인지 찾던 중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반대쪽 문에서 뜻으로 글씨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 문만 수리를 하려고 해도 우리 돈으로 거의 1억이 들어가는 차를 말입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들을 야단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안고 창고 끝으로 갑니다. 그리고 망치를 들었습니다. "I will give you lesson. . ."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가르칠 거야라고 외치며 망치로 아들을 손을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내려치다보니 바닥이 피로 젖었고 정신을 차린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응급실로 갑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응급실에서 아버지를 쫓아낸 의사는 결국 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손목을 자르는 수술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아버지는 손을 자르고 누워있는 아들의 병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벌벌 떨면서 숨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면서 이야기 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 ."

아버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 자살하고 맙니다.

그리고 신문기사에는 아들이 자동차에 낙서했던 글이 나왔습니다. "I love da. . ."까지 썼던 것으로 보아.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소중한 차에 "아빠 사랑해요. . ."라고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났나요?

비참한 아버지 같지 살지 않겠다고,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정상에 올라선 아버지가 얼마나 불행한 삶을 마감했는지. . .

방향이 없는 목적이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사막 한 가운데서,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방향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사막을 지나가는 순간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하지만 그 길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인생의 사막을 멋지게 건너봅시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사막 한 가운데서 우리 의 믿음을 보여 봅시다. 노아가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가장 죄악이 창궐했던 때에 “당대의 의인”이었던 것처럼. 사막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실천사항

1.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걷고 있던 인생의 산은 무엇인가요?

2. 인생의 사막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침반은 어떤 방향을 지시하고 있나요? 인생의 끝까지 버릴 수 없는, 놓쳐서는 안 되는 그 귀중한 방향이 무엇인가요?

3.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막에서 보여야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2)